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Vol.4, No1, June (2017), pp. 51-60
디지털 예술공학 멀티미디어 논문지 *http://dx.doi.org/10.29056/idaem.2017.06.05*

중년기 성인이 지각하는 주거환경 만족 및 사회적 지지가 노후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me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f the middle aged on Housing Selections of Old Age

홍선관[1)]

Sun-Gwan Hong[1]

요약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성인들이 선호하는 노후 주거형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인지하는 현재의 주거환경 만족 및 사회적 지지가 향후의 노후 주거선택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9월에서 11월까지 온라인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최종적으로 298부의 설문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노후에 원하는 주거선택으로는 작은 규모 주택으로 이동, 현재 주택 유지, 주택연금, 노인시설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환경 만족($p<.01$) 및 사회적 지지($p<.01$)가 현재 주택 유지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환경 만족 및 사회적 지지는 작은 규모 이동, 주택연금, 노인시설 등의 주거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노후에도 현재 주택을 유지하는데 주거환경 만족 및 사회적 지지 모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만족이 노후에 현재 주택유지를 유지하는데 더 유의미하였다.

핵심어: 중년기, 주거환경 만족, 사회적지지, 노후, 주거선택

Abstract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home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f the middle aged on housing selections of old age.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15 to November, 2015 and 298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it was showed the effects of home environment satisfaction($p<.01$) and social support($p<.05$) of the middle aged on housing maintenance as a housing selection of old age. Home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didn't have any effect on small-scale houses, housing mortgage institution, old facilities. In conclusion, home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f the middle aged were major variables that affect housing selections of old age

Keyword: the middle aged, home environment satisfaction, social support, old age, housing selections

1) Dept. of Architectural Space Design, Seoul Cyber University
e-mail: sghong@iscu.ac.kr
Received(May 28.2017), Review (June 11.2017), Accepted(June 30.2017)

ⓒ 2017 NCISS

1. 서론

최근 고령인구와 노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향후 노인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 활동 범주가 축소되는 노인기에 있어서 자신이 선호하는 주택유형에서 거주하고 주택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은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중년기 성인들은 자신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긴 삶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게 되는데[1]. 그 중 중요한 관심사가 노후의 주거선택이다. 중년기 성인들이 향후 노후에 살아갈 주거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주거의 환경적 요인과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 같은 사회적 지지가 주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사람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은 집이다. 집은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이고 주거환경은 집을 둘러싼 자연적,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곳이다. 물리적 요소에는 숲, 공원 등의 녹지, 관리상태 등이 해당되고 자원적 요소에는 의료, 공공시설, 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이 포함된다. 또한 경제적 요소에는 주거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 매매가격 및 재산증식의 투자가치가 해당된다. 그 외 안전성, 교육 환경, 사생활보장, 공해 등의 요소들도 중요한 주거환경 구성요소로 제시된다. 주거환경 구성요소의 가치순위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변 환경의 쾌적성, 공공시설 서비스, 범죄 안전, 자녀 교육환경을 중요한 요소이다[2]. 선행연구[3] 은 주거환경에서 자녀의 교육환경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주거선택 시 교육환경, 주거의 경제성, 교통의 편리성 순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환경 구성요소로 설명하였다. 또한 현대사회는 이러한 주거공간이 주거의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 및 재산증식의 목적도 동시에 포함된다. 실제 거주자들은 주거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선택조건과 기준을 단순히 단위주택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를 둘러싼, 주거의 질을 결정하는 주거환경에도 주된 관심을 갖는다[4,5].

사실상, 주거특성과 같은 물리적 요인은 인간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6]. 이는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 활동 범주가 축소될수록, 자신의 거주지에서 하루일과 중 장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행연구[7]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심지어 노인들은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된 이후에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고,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도 요양원 등의 시설보다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이 63.8%로 나타났다. 결국 인생주기에 있어서 노후가 진행될수록 주거의 중요성

ⓒ 2017 NCISS

은 부각되고, 개인이 주거에 부여하는 심리적 애착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주거에 대한 개인적 인식이 각자의 삶의 만족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8].

한편, 사회적지지란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써[9]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도와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며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10]. 즉 사회적지지는 한 개인이 적응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타인에게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서 대인관계적인 거래로 정의되며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적 지지를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지지의 중요한 지지원으로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11]. 이처럼 가족과 친구의 지지는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가족과 친구를 제외한 지지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중요한 지지원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기에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개인에게 영향력 있는 모든 타인을 포함하는 중요타인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거주자들에게 현재의 주택에 거주를 계속하기를 선호하게 만들 수도 있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유형의 주거 거주를 선호하게 하는데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나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에 살면서 핵가족, 친인척, 이웃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다고 느낄 때는 지속적으로 현재의 주거형태 유지를 지향할 수 있다. 반면 현 거주지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거나 사회적 지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각하면, 향후에는 좀 더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지역 및 주거유형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들이 지각하는 주거의 실제적 환경요인과 관계적 사회적 지지가 향후의 노후의 주거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들이 인지하는 주거환경 만족 및 사회적 지지가 향후의 노후 주거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자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디지털대학교의 재학생인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 2017 NCISS

대상자들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성인들이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메일을 통해 총 500여부가 배포되었으나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98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측정도구

2.2.1 주거환경 구성요인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12]의 주거환경의 개인-환경 적합성 구성요소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 물리적 영역에는 녹지, 깨끗한 환경, 쾌적한 공기 등을, 자원적 영역에는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경제적 영역은 재산증식상의 투자가치이며, 교육적 영역은 학군 및 학원 시설의 편리정도이다. 사생활보장은 개인 및 가족의 사생활 보호이고, 안전은 교통사고, 범죄, 화재 및 폭발 등 기타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공해는 도시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악취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주거환경 구성요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87 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물리적 Cronbach's α= .808자원적 Cronbach's α= .872, 안전성 Cronbach's α= .801, 경제성Cronbach's α= .644, 교육적Cronbach's α= .728, 사생활보장Cronbach's α= .881, 공해 Cronbach's α= .782로 제시되었다.

2.2.2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 척도(Multidu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는 [13]에 의하여 개발된 다차원 척도이다. MSPSS는 사회적지지를 가족(4문항), 친구(4문항), 중요한 타인(4문항)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인지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하위척도 중 중요한 타인 차원에는 가족과 친구를 제외한 교수, 멘토 등 대학생에게 영향력 있는 타인으로 생각되는 모든 지지원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 2017 NCISS

2.2.3 노후주거 선택

종속변수인 주거선택을 측정하기 위해 참고문헌[14]을 참조하여 노후주거로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현재주택거주, 주택연금, 국민임대주택, 노인시설 거주의 네 가지로 선정하였으며, 각각에 대해 노후에 거주를 원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2.2.4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는 조사응답자의 노후 주거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연령, 성별, 직업, 결혼상태, 월가구 소득, 결혼기간, 건강 등을 설정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둘째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주거환경 구성요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성별, 직업, 결혼상태, 결혼기간, 월가구 소득, 건강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연령의 경우 40대가 110명(36.9%)으로 가장 많은 연령층이었고, 남성이 155명(52%)으로 여성보다 더 많았다. 결혼상태는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189명(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유지 기간은 15년에서 25년 사이가 77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정규직이 202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소득은 월 500만원 이상이 68명(23.3%)으로

ⓒ 2017 NCISS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자의 128명(42.8%)은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통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		classification	frequency (%)
age	20'	59(19.8)	sex	male	155(52)
	30'	73(24.5)			
	40'	110(36.9)		female	143(48)
	50'	53(17.8)			
	60'	3(1.0)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4(1.3)	occupation	permanent	202(69.7)
	high school	176(59.3)		temporary	50(17.2)
	undergraduate	113(38.0)		unemployed	38(13.1)
	graduate and above	4(1.3)			
marriage	married	189(65.2)	income	under200 man-won	51(17.5)
	divorce	18(6.2)		200-300 man-won	65(22.3)
	seperation by death	7(2.4)		300-400 man-won	47(16.1)
	cohabit	2(.7)		400-500 man-won	61(20.9)
	etc	74(25.5)		over 500 man-won	68(23.3)

3.2 주요변수의 특성

3.2.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거관리 행동 의도 중 작은 규모 이동이 5점 만점에 2.93(SD=1.1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 유지는 2.25(SD=1.04), 주택연금은 2.23(SD=.92), 노인시설이용은 1.79(SD=.81)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만족은 3.26(SD=.60)으로 5점 만점의 척도에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4.03(SD=.72)으로 5점 만점의 척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2017 NCISS

[표 2]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특성 및 분포
[Table 2]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variables

	minimum	maximum	mean	SD
housing maintenance	1.00	5.00	2.25	1.04
small-scale houses	1.00	5.00	2.93	1.13
housing mortgage institution	1.00	5.00	2.23	0.92
old facilities	1.00	4.00	1.79	0.81
home environment satisfaction	1.68	5.00	3.26	0.60
social support	1.33	5.00	4.03	0.72

3.2.2 노후 주거 선택의 각 하위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후 주거선택의 하위변인인 작은 주택으로의 이동, 현재 주택거주, 주택연금, 노인시설에 주요 독립변인인 중년기 성인이 지각하는 주거환경 만족 및 사회적지지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주요 독립변인들은 현재주택 거주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주택 거주를 주요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3.2.3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현재 주택 유지

일반적 특성의 변인으로 연령, 학력, 결혼상태, 결혼년수, 자녀수, 직업유무, 소득, 건강에 따른 현재 주택 유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월평균 소득이 현재 주택 유지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3.2.4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수에 대해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주거환경 만족과 사회적 지지, 현재 주택 유지 간에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가 0.80보다 낮아서 상관관계 계수 상에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 2017 NCISS

[표 3] 인구사회학적 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home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housing maintenance
home environment	1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092	1	
housing maintenance	.192**	.127*	1

*p<.05, **p<.01

3.2.5 현재 주택 유지에 대한 영향요인의 회귀분석

독립변인에 주요변인인 주거환경 만족,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시된 독립변인들로 구성된 현재 주택 유지의 회귀모형은 4.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거환경 만족($p<0.01$)과 사회적지지($p<0.05$) 모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환경 만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현재 주택 유지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한편, 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주택 선택에 대한 영향요인의 회귀분석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housing selections

variable	B	SE	β	t-value
	.295	.108	.165	2.728**
	.208	.087	.145	2.395*
constant	.488	.477		1.023
R	.229			
R^2	.052			
Adjusted R^2	.045			
F	7.226***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 2017 NCISS

첫째, 향후 노후에 원하는 주거선택으로는 작은 규모 주택으로 이동, 현재 주택 유지, 주택연금, 노인시설 입주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당부분 일치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6]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심지어 노인들은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된 이후에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고,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도 요양원 등의 시설보다는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이 63.8%로 나타났다. 결국 인생주기에 있어서 노후가 진행될수록 주거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개인이 주거에 부여하는 심리적 애착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되었다[7].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서 노후에 작은 집으로 이주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이 현재 주거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작은 주택으로의 이동을 선호하는 주요 이유로는 자녀들을 독립시킨 후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노인시설 입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은 선행연구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거환경 만족이 현재 주택 유지에 상대적으로 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특성과 같은 물리적 요인은 인간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6]. 이는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 활동 범주가 축소될수록 물리적 환경인 주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현재 주택 유지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성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살면서 핵가족, 친인척, 이웃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때 지속적으로 현재의 주거형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노후에도 현재 주택을 유지하는데 주거환경 만족 및 사회적 지지 모두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물리적 환경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이 노후에도 현재 주택유지를 유지하는데 더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표집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을 디지털 대학으로 한정하여 설문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본 결과를 모든 성인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 거주자가 현재 경험하는 주거환경 만족 및 사회적지지가 노후의 주거 선택에 어떠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명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고령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1인 가주 및 무배우 노인에게 필요한 주거유형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14], 1인 단독가구로 살아가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주거선택이나 주택유형에 따른 선호도 및 기능성을 고려한 연구도 필요하다.

ⓒ 2017 NCISS

References

[1] Hong, Sun-Gwan. "The effects of multiphasic components of home environment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2016): 419-425.

[2] Cho, S. H. "A Study on the Motives of Mobility and profile of Housing Environment Quality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Housing Research Journal 7.2 (1996): 69-77.

[3] Kim, Byoung-Su, and Chung, Cheol-Mo. "A Study on the effect of housing value and trust in residential area on positive word - of - mouth intention according to the housing environment influence factors - focusing on the multi - family housing dwellers in general residential area of jeonju." residential environment :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1.2 (2013.6): 79-92.

[4] Park, J. H. "An Analysis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in Downtown of Seoul." Master dissertation,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2012).

[5] Yang, J. W. "A Study on the urban residents'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Master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1990).

[6] Cho, S. H., and Kang, H. G. "Residents' Attitudes for the components of Home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1.1 (2000.2): 45-56.

[7]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On Survey of Housing Research Report (Elderly), 2009.

[8] S. G. Hong, The effects of multiphasic components of home environment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3. pp.419-425, 2015

[9] Cohen, Sheldon, and Harry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1983): 99-125.

[10] Sarason, Irwin G., et al.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983): 127.

[11] Buhrmester, Duane, and Wyndol Furman.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1987): 1101-1113.

[12] kim, yong-jin. "analysis on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to live of the elderly using person-environment fit model." residential environment :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1.1 (2013.4): 51-62.

[13] Zimet, Gregory D., et al.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1988): 30-41.

[14] Hong, Sung-Hee. "Housing Management Behavior of the Elderly : Focus on the Causal Effects of Housing Satisfaction and Housing Selections."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15.2 (2011):1-21

ⓒ 2017 NCISS